



1. 여성운동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 역사발전에서 본 여성문제와 여성운동론의 변천.

계급사회 출현과 함께 반성한 여성문제 촉발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예속과 의존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여성문제가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제기 된 것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부르주아 여성주의로부터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자유주의 여성운동의 약점은 여성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내에서 개혁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는 데 있다.

즉, 여성문제를 노동여성이 가진 계급적 문제들까지도 포함하여 사회제도 개혁의 대응으로 해결하려 했어야 했으나, 제도내에서 평등 실현이 매우 개량주의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후 여성운동의(노동) 혁명적 전환은 여성문제가 본질적으로 여성노동력의 착취라는 것을 밝히게 되며, 여성운동론도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으로 제기되어 갔다.

자본주의 최고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의 출현은 제3세계 민족해방투쟁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며, 민족주의, 인간주의를 글자 그대로 혁명이론으로 탄생시켰다.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정음·반전되어진다. 인간이 중심이냐 한다는 시야뿐만 아니라 여성이 인간으로서 갖는 관습이나 여성문제 해결수단은 여성자신으로 선택하며 인간성 실현의 방도로써 각계각층의 여성대중전반의 통일·단결을 지시한다. 이는 또한 반전해온 자유주의 여성해방론(남녀 평등사상)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노동여성 중심의 사회변혁투쟁)의 내용, 게다가 민족해방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해낸 새로운 여성운동론의 자기매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운동론의 발전방향은 한국사회의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그러한 정음 되어진다.

자본주의 최고최후의 단계인 제국주의의 출현은 우리사회와 같은 식민지



여성들의 문제를 가장 극심하게 드러내 주었다. 식민지 여성들에게는 계급과
 진영에 의한 노동착취와 봉건적 천대가 결합된 것으로서 이공상중의 가장
 가혹하고 잔혹적인 것으로 되었다. 식민지 여성의 처지는 경제적 권리는 물론
 기본적인 인간적 권리로 보장받지 못하며, 경제적으로는 가정을 여성의 책임
 으로 떠맡기고 여성의 노동기술 수준은 높아 안토 채 쫓겨갈 노동자
 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농성임금의 절반으로 장시간 단순노동으로 억압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성보살 처치하에라도 인간으로서 당겨 감당할 수 없는
 근로조건으로, 봉건적인 안락성 욕망이나 이념적 구속으로 시달리는 노예의
 처지까지 시달리고 있다.

농촌여성의 경우에는 봉건적 남존여비의 근기에 들어서며, 가정에서
 권위라는 의무로, 한편 도시로 빠져나간 농성노동을 대신한 과중한 생산
 노동으로 생산성, 육체적 인종속에서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과 동학사상이 반봉건반식민지 남녀평등이념이 뿌리
 시작하였으며, 개화기에 남존여비 타락사조로 여히지 않으면 여성문제는
 1953년부터 전제타도전 가족법개정운동에서 안수 있듯이 주로 상층의
 명망가 여성들에 의해 추진되어졌는데 범국민 계층이 볼 여성지위의 향상
 이라는 소박한 반상과, 기대되는 가관 농성들에게 반성하는 차원 형식은 역시
 소극적·기량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60,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산업화에 따른 여성노동자 증가에 따라
 '지배계층의 여성노동력 착취' 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또한 임제하에서는 '가정내'로 이르는 확대적인 양자·양자형태의 유입과
 산업 매혹권장, 마술극등으로 인한 가치론의 형성은 현대사회의 이르러 여성이
 목격처럼 미디어는 인식매체가 환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도출



사건 있다. 이 속에서 50.60년대와 같은 경우 70년대 이후 여성문제에 관한 논의가 한국여성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작업의 이론적 한계, 서구의 여성해방이론이 속속들이 도입되고 80년 이후에는 서구에서 도입된 이론들은 한국여성 현실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억압적 현실을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해방을 위한 실천으로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올바른 여성해방이론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하의 자식 논의에 나타났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한국여성운동론의 과제가 제기된다.

첫째, 계급주의(이·안)하의 한국사회 현실에서 여성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내용은 선진국과 차이가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 모색, 즉 여성운동의 모든 단계를 단계에 나가는 실천적투쟁이론이 제기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현실에 기반한 여성해방이론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동여성의 현상실체다 투쟁에 근거한 여성운동론의 방법과 단계 각종 여성들의 여러투쟁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위에서 인간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론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한국여성운동의 현실에서 여성운동론이 가져야 할 임무와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여학생 운동권

1) 여학생의 손기생

우리사회 여대생이라고 하면 노동착취나 불건장 천대 속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간 래카우 근로여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쩌면 특권적 처지에 있단 분 수도 있지. 여대생도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위의 존상층 이상의 양성바 결론하여 계층적 상층을 꿈볼 수도 있는 존재이며 문화적 생활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는 신기하게 바둥쳐야 하는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단 것이지. 그러나 여대생은 분명히 식민지 여성으로 그 억압과 수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인신매매란의 뿐만, 여대생 매매권 상황 등도 변한 낯선지 않은 바깥까지가 되었고. 여대생 최압박제도 마찬가지이리.

'적근제' '가계제' 같은 사위억압의 강기하에 여대생이 같은 자력바 능력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간은 양성바 뒷배의 밀려나게 할리. 또한 여대생이 제정신을 하리라 하더라도 여성차별수호, 승진기회 박탈, 인성반은 신은 등은 여성은 자력으로 강제로 쫓겨나게 할리. 이들을 성차별이나 사위의 억압은 전체노동자의 저항층에 응이 하게 이양하면, 여성노동력의 조력착취기는 적실한 사위 지배자, 수탈적 체계 구축이 있어상동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지.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소극성과 순의가는 비공인된 문화도 함께 래카우 될리. 결국 사위억압에서 비롯된 고학력 실업자들인 여성들에게는 아무주위라 가생적 경향이 좌향배해 될 수 밖에 없게 될리. 그러나, 이런 해방이후 유출된 미주식 미주주위라 여권주의 유입으로 현실의 불건장 양종여비 사위제로는 여대생으로 하여금 폭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될리. 기력이 증진학생으로서의 유기한



체력의 신장사상과 이론의 충실, 과학이란 특수성이 짙고서도 학술성을 가지며, 체계성있는 체계로서 본의와 다름하게 많은 개념을 갖는다, 그러나 여학생은 기본적 양성과 구위사상등의 고됨에 민감하며, 자신의 차이를 지지를 높게 인식할 때는 자신의 생활양식으로 변명을 간망하여 현실적인 유능성있는 자제로 변혁운동에 참여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학생들은 남한사회에게 여성이 가진 수 밖에 없는 보편적인 여성문제와 여학생의 인문적인 리치 등 특수한 문제, 그리고 여학생으로 가진 수 있는 독특한 혁명적 시도를 갖게 된다.

이는 본 여성문제의 해결방법인 해결의지, 그리고 해결수치를 명백히 세울 수 있는 한 해의 움직임이 된다.

2) 여학생 운동

문제가 있는 곳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주체의 노력이 있다면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주체의 노력(행동)'은 운동이라 한다.

따라서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여성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여학생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결국 여학생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과 억압, 착취를 거부한 여학생의 자주적 권리와 지향을 획득해 나가는 운동이라 하겠다.

그러하면 여학생 운동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먼저 정의를 획득하자. 첫째, 사회적 차별구조를 근절하는 지배세력의 타락과 양심한 양녀 행동의 실현이다.

둘째, 학생으로서 전바람이며 선진적인 학문, 사상, 이론, 기술의 습득과 이로부터 사회적 생산활동에 능동하게 참여, 기여하라 하는 것이다.



세계, 학생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차이의식과 차별구리의 차이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위의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학생 스스로의 자각적 참여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대량조직의 건설, 그리고
 동일성인 단결투쟁의 민중이 지지되어야 한다. 이는 전체 학생들을 강타가 된다.

3. 학생운동이나 여학생 운동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학생의 존재공간은 학생운동의 지배권을 한계운동
 층에 지니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학생운동의 주체는 여학생 자신
 이며, 여학생 스스로의 단결된 조직체를 통해서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학생운동을 더 이상 논외의 여지도없이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또한 학생운동의 발전이 여학생 운동의 발전
 조건이 되며 여학생운동의 발전은 전체학생운동의 발전에 부응한다.
 여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이라는 부분운동내의 부분운동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전체 학생운동이라는 부분운동으로 자리매김 되는 이중계층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학생운동에서의 선례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내용을 갖고 있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현재 지배적인 청년학생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전체운동이 발전하면 학생운동은 자연스럽게 발전한다는 시각이다.
 두번째, 여학생운동의 대량적 사업성리가 없는데로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
 어 활동하는가는 관자이다.

세번째, 여학생운동만이 우리가 담보해야 할 내용인 학생운동은 스스로
 하는 경향이다. 앞의 두가지는 주로 남학생들에 의해 제기 되어서는
 문제라해서 현재 남한사회의 동진한 사회제도, 차별구리에 대한 등반은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불경쟁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남성들의 지위는 여성들보다 긍정적이며, 이는 어머니 여자를 따서
 구분하는 의미부터 한국사회의 본질은 음계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는 반명
 이라, 또한 '자수성가', '사대계승'이란 변혁생태의 천적, 음계의 기본
 성질이 태생적이 아닌 후천적이며 반명한다는 것나 서양사회의적 사업작동
 등의 지적할 수 있다.

(총여에서 총학 산하 여성생부 체계의 본질론에 대하여 살펴보자.
 어떤 체계이든 그것은 대충의 이해와 여러 구체적의 실현할 수 있는
 실행요소를 책임지나, 못한가이 따서 그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얼마나 여학생 대충의 자기전제에 대한 교육, 훈련의 광대성으로 인식
 하는 것인가? 구체적 실생활에서 총여의 실용성을 인식한 사업은 운영
 하여 했는가? 자문해 보려면, 한원론은 막연한 분담, 이렇게 하면
 더 사업이 순조롭지 않은가? 행사주의, 기구주의, 서민주의의 연구에
 빠지고 있으며, 부체계 확원 이후 사업에 대하여 막연한 대안이
 없음이 문제이다. 여러 대안들은 입장보다는 계열별 조직강화에
 대한 비체계적 관점에서 가장 확원한 조직은 강박적이며, 현재까 아닌
 미국의 전체적 반전상 속에서, 현재의 사업과 체계를 무너시키는
 자체가 더욱 더 있다.)

세번째 부분 역시 여성들의 이직비율은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자기반장은 공신력 레너가야 하는 전체관공
 변혁은 역시 매우 중대차한 것이며, 전체성들은 여성들, 여학생.
 음계의 반명이라는 것까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까지
 두는 바는 우 밖이 없다.



4. 여학생운동의 지지는 위하여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여학생들끼리의 통일관철된 조직체라는 점이었으며 여학생들 조직에 의해 산출되어야

1) 피학생 (여학생 자체운동기구의)

- ① 골자적 피학생 — 여학생에게 그 이해와 요구에 응하는 인식의향유, 자치운동 등을 통한 민주주의의식과 능력배양, 정치적 각성을 통한 자각적인 인간으로 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위의 마련
- ② 현재의 학생운동 수준과 여건 — 상층부에 두각을 나타내는 여학생 대중에 의식바뀐다, 만연해 있는 남성중심의 사회풍조 등 여학생의 이해와 마련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제 —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차원에서 구체화 시키는 것.

- ① 집단적 해결을 위한 여성분파의 결속, 확실히 가장 일치적
- ② 민주주의 실현과 정치적 행동들을 조직화
- ③ 여학생 대중에 여성해방에 관한 구체적성도 가진다 있도록, 동시에 자타를 위한 권익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도록

3) 총여학생회

- Ⅰ 학회 — 여학생들의 의견을 전담하는 그 이익을 실현하는 유일한 대변기구. 대중학생회, 공동학생회, 여학생들의 신학회.
- Ⅱ 여부 — ① 지리적 확보. ② 공익적, 자각적 참여보장 수단. ③ 주체적 인간 (자각적, 민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